

세계 넘어 우주로 떠나는 음악여행

이당금의 지구여행 음악콘서트 12월 18일까지 씨어터연바람 김마스타 트리오 등 참여



'이당금의 지구여행 음악콘서트'가 오는 20일부터 오는 12월18일까지 씨어터연바람에서 열린다. 공연에 참여하는 NS JAZZ BAND.

코로나 19 팬데믹이 전세계에 확산하면서 하늘 길이 막힌지도 2년이 다 돼간다. 그동안 전 세계 국가들은 해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다시피 했다.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을 공연으로 풀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당금의 지구여행 음악콘서트'는 재즈,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푸켓, 스페인, 뉴욕 등 해외를 넘어 안드로메다까지 여행할 수 있는 공연이다.

오는 20일부터 12월18일까지 씨어터연바람(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푸른연극마을 이당금 대표가 코로나 19로 문을 닫은 공연장에 힘을 실어주고, 소극장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관객들이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뮤지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첫 무대는 20일 오후 7시 하이 미스터 메모리 트리오가 카오산로드에서 푸켓섬으로 떠나는 아트포크락'을 주제로 꾸민다. 싱어송라이터 기혁과 아코디언리스트 박상민, 베이스리스트 신박사로 구성된 이들은 '엄마를 부탁해', '길 위에서', '니가 떠나고', '꽃순이 이야기' 등 8곡을 들려준다.

이어 27일 오후 7시에는 상하이크로스오버밴드가 '조선에서 레알마드리드까지 기타 들고 이리온 너라'를 선보인다. 상흔은 기타, 베이스라는 양악기를 사용해서 국악의 가락과 소리를 선보이는 한편 음악을 연구하는 크로스오버 국악 뮤지션으로 '기타산조', '국악펑크' 등의 음악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최근에는 JTBC '풍류대장 - 합한 소리꾼들의 전쟁'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날 공연에서는 조선, 김동민, 박성도 등과 '아리랑 고개', '진도아리랑', '영월아리랑', '구운몽' 등 다양한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뉴올리언스에서 시카고 찍고 뉴욕으로 떠나는 리듬&블루스' 무대를 선보일 김마스타 트리오스는 12월4일 공연한다. 가수 겸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인 김마스타는 베이스 이정민, 드럼 박지웅과 함께 팀을 결성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외롭기는

지구 어디나 마찬가지로', '재규는 개구장이', '지금은 강릉', '룩커의 순정' 등으로 관객과 만난다.

이어 재즈콰이어 The Sweet는 '아라비아해 몰디브에서 마시는 모히또'(12월10일)를 주제로 무대를 꾸민다. 최수빈·최강·임채희·이미지·최유진 등 5명의 재즈보컬리스트로 구성된 이들은 감미로우면서도 다이나믹한 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NS JAZZ BAND는 12월11일 공연한다. 이들은 재즈 선율의 진짜 면모를 보여줄 '보이저 1호 타고 안드로메다 우주로 향하는 DEEP SWING'을 준비중이며 레퍼토리는 미정이다.

마지막 순서는 '노마드 라이프 몽골에서 아침먹고 나폴리에서 와인 마시는 특급여행'(12월18일)이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미니넷 오케스트라는 류바 안종민, 우쿨렐레 이창민, 바순 김성민, 아코디언 박상민으로 구성된 팀으로 클래식은 물론 재즈, 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단체다. 공연에서는 이들의 독특한 악기구성으로 '베사메 무초', '바람의 노래', '하얀 나비', '노란셔츠입은 사나이', '리베르탱고', '비



12월18일 공연하는 미니넷 오케스트라.

아지오'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전석 3만원이며 사전예매시 1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 '씨어터연바람' 참조. 문의 062-226-244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긋·당산긋...무형유산 농악 축제 열린다

광산농악보존회 20~21일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농악은 세시풍속과 관련된 종합예술이다. 농사를 관장하는 신에게 올리는 제사로, 액운을 쫓고 복을 부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인류무형유산인 농악을 향유하고 알릴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8호인 광산농악보존회는 오는 20~21일 광산농악 한마당 축제를 연다. 하남 동광산농악 전수교육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한마당은 광주지역 농악을 집대성한 광산농악의 다양한 모습을 알리고 즐기는 시민의 축제로 치러진다.

농악 시연 외에도 농악 체험 스탬프 투어, 농악 인문학 콘서트, 창작공연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축제의 문은 '인문학콘서트 농악'이 연다. 인류무형유산 농악의 가치를 비롯해 향후 지역 문화자산으로서의 농악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등을 조명하는 시간이다. 20일에는 이용선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농악'을 주제로 강연하고, 21일에는 이운선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이 '광산농악의 지역적 기반과 전망'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광산농악 시연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첫날 20일에는 문긋과 당산긋 시연이, 21일에는 마당밧기와 판굿을 토대로 실제 마을긋의 진행과정이 펼쳐진다.

농악 체험 스탬프투어인 '농악 그것이 알고 싶다'도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수수깨끼를 맞춰라', '깃발싸움' 등 체험과정을 통과하면 스탬프를 받을 수 있고 전체과정을 모으면 소정의 선물도 받는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농악을 소재로 새롭게 해석한 창작공연 '법고창신 농악 콘서트'. 모두 4팀이 하루에 2팀씩 공연을 선보인다. 20일에는 풍물세상 굿패마루가 시장상인들의 흥과 멋을 다양한 해학과 연기로 풀어낸 'GOOD시장'과 한국전통예술단 아울의 신개념 연희 창작판극 '공기결'이 펼쳐진다. 21일에는 상주자가 'KOREAN GIPSY'라는 작품으로 '지신밧기' 등을 들려주며, 타악그룹 일수는 '타악퍼포먼스 타고'를 통해 물과 불을 주제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광산농악 시연 장면

<광산농악보존회 제공>

'메타버스 타고 작가 만나러 가자!'

광산구통합도서관 24일 강연 김상균 강원대 교수 초청

광산구통합도서관에서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메타버스 타고 작가 만나러 가자!'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ifland' (메타버스 소셜 커뮤니티

케이션 플랫폼)에서 펼쳐지며 메타버스 권위자이자 인지과학자인 김상균 강원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김 교수는 디지털지구에서 살아남기, 메타버스 시대의 도서관 이용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메타버스', '게임인류',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와 같은 책을 통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동적이고 변동적인 개념으로 등장한 메타버스 등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강의할 예정이다. 어플리케이션 사전 설치 및 가입 필수이며 접속링크를 발송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선착순 129명에 한해 선착순 접수를 받으며 광산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062-960-3949.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호남예술제 출신 박태이, 소년한국일보 음악콩쿠르 최고상

호남예술제 출신인 박태이(광주송원초 4년·사진)군이 최근 '제49회 소년한국일보 음악콩쿠르'에서 최고상을 받아 화제다.

박 군은 네 차례의 도전 끝에 올해 열린 제66회 호남예술제 현악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후 자신감을 얻은 그는 제49회 소년한국일보 음악콩쿠르에서 비에나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3악장'을 연주해 최고상을 받았다.

박 군은 어머니의 권유로 4세에 바이올린을 접했다. 이후 매일 꾸준히 바이올린을 켜는 것은 물론, 이번 콩쿠르를 앞두고는 하루에 4시간씩 연습하는 열정을 보였다.

박 군은 "최고상을 받은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 바이올린 연주와 공부를 열심히 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의사가 돼서



몸은 물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음악으로 치료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올린의 기본기를 탄탄히 쌓도록 도움주신 선생님과 응원해주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클래식에서 막을 내린 '제49회 소년한국일보 음악콩쿠르'에는 서울과 광주, 제주 등 전국에서 236명이 참가했으며 바이올린 부문에는 114명이 참가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Him e Bsong Solar Energy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